

“세상사람 웃고 울리는 鼓手 될래요”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아픔에 놀보 형제가 살았는디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디 놀보는 오장이 칠보라~(판소리 ‘흥보가’ 中)”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년인 복체를 쥐고 신명나게 판소리 ‘흥보가’를 불러 제한다. 소년의 꿈은 판소리 마당에서 추임새 목청을 돋우는 고수(鼓手)가 되어 세상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싶은 것이다. 13살 소년의 꿈은 12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박초월제 흥보가 발표회’ 참가로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다.

준이는 선천성 자폐증을 앓고 있다. 암 환자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감기처럼 조금만 참으면 낫는 것도 아니다. 바깥 세계로 향한 문을 자신도 모르게 잠그고 사는 병. 평생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병. 이것이 준이가 앓는 병이다.

최정돈(45·애드버타이징 윌 대표) 씨와 모현선(41) 보살. 준이는 이 두 사람의 첫 아이이다. 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그 아이가 다른 아기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준이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번만이라도 방긋 웃어주길 바라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했다. 부부는 조금 유별난 아이거나 생각하기로 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부부는 준이의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웅얼이와 뒤집기를 건너뛰고 두 살이 되어도 말문을 못 열었다. 항상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했다.

세 살이 되던 해, 부모는 소아정신과를 찾았고 준이에게는 ‘정신 지체장애 2급 자폐아’란 판정이 내려졌다. 조부모인 최문준(77) 거사와 윤복순(74) 보살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첫 손자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준이의 치료에 매달렸다. 자폐증을 치료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다녔다. 할아버지는 한 시간의 치료를 위해 네 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매일 준이를 업고 다녔다. 아버지는 아이를 맡아 치료해 줄 유치원을 찾아 서울 시내를 얼마나 돌았는지 모른다. 어머니도 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함께 학교

난치병 딛고 국악인 꿈 꾀는 최준 군과 가족

선천성 자폐아-누구에도 눈길 안줘 꾸준히 법회 참석, 독경소리 커 기울여 판소리 교육...조금씩 마음의 창 열어

에 등교했다. 대소변을 못 가렸던 준이가 실수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준이 학교가 개화하던 어느 날이었습시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서 교실로 못 들어가서 화장실에 쓰러져 앉아 있다며 울먹거리더군요.”

이런 일은 오히려 견딜 수 있었다. 준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족들은 서글픔을 마음속으로 삭여야만 했다. 준이를 가르칠 수 없다며 전학을 권유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가족은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이로 인한 고통은 준이네를 더욱 부처님 곁으로 인도했다. 최정돈 씨 가족은 친구의 권유로 10년 전부터 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다. 대행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준이네 가족은 법회는 물론 새벽예불까지 빠짐없이 참가한다. 준이가 아픈 것을 공부삼아 수행하라는 스님

◇세상사람을 즐겁게 하는 고수가 되고 싶은 준이와 그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고 싶다는 가족들.
왼쪽부터 아버지 최정돈 씨, 준이, 동생 윤선, 어머니 모현선 씨.



◇법회에 참석해 독경소리를 듣다가 판소리교육을 받은 준이. 12일 판소리 흥보가 공연을 마치면서 준이는 세상을 향해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

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정진했다. 어린이들이 장애와 무관심, 학대로 고통받지 않은 세상이 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꾸준한 법회 참석은 기억(氣)을 가져왔다. 자폐증인 준이가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독경을 조금씩 따라 하더니 어느덧 준이는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완전히 암송하게 됐다. 준이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였던 것이다.

이 때부터 가족은 준이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 준이가 독경소리와 전통음악 같은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음감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가족들은 자폐증 치료 삼아 판소리 교육을 시작했다.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음악교육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3년 동안 준이는 가족들의 격려를 받으며 판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월 준이는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판소리 노상 공연에서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노래를 부르는 데 성공했다. 13년 만에 준이네 가족은 마음껏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

‘준이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자.’ 준이네 가족은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 뛰어 다녔다. “준이가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는 아버지 최정돈 씨는 “하지만 장애인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올해 3월 국립국악원은 12일 오후 1시간 동안 준이를 위해 우면당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박초월제 흥보가 발표회.’ 준이는 이제 세상으로 난 마음의 창을 조금씩 조금씩 열고 있다.

“준이의 별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부처님처럼 웃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요. 이 다음에 준이가 그 별명처럼 행복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이가 세상을 향해 웃게 되기까지 그 가족이 겪어온 사연이 오죽했을까.

준이 어머니는 “집안에 숨겨진 채 쉬쉬거리며 살아가는 장애인 동물이 너무 많다”며 “불교계가 앞장서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을 세워 고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교TV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영상포교의 사명을 다하는 불교TV가 관악구 봉천동에 새 사옥을 마련하고 무상사 및 문화원을 개원합니다. 2천만 불자님의 성원 속에 그 장엄한 막을 올리고자 합니다.

**불교TV 이전
무상사 개원 점안
불교TV 문화원 개원**

- ◆ 일 시 : 불기2547(2003)년 4월 20일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 관악구 봉천 8동 불교TV 무상사

불교 텔레비전 주식회사

151-820 서울 관악구 봉천 8동 945-2번지
전화 : (02)3270-3300, 3270-3366~7(불교 TV) / (02)3270-3399(불교 TV 문화원)
팩스 : (02)3270-3498



보 특별법회 축

선지식 초청 특별 법회

- 시 간 : 4월20일 ~ 매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불교TV 무상사

- 21(월) 도원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22(화) 청화 스님 (곡성 성륜사 조실)
- 23(수) 성수 스님 (황대선원 조실)
- 24(목)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 25(금) 정일 스님 (보광사 조실)
- 26(토) 무진장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 27(일) 월은 스님 (동국대 경역원장)

불교TV 문화원 명사초청 강연

- 시 간 : 4월21일 ~ 매일 오후 2시
- 장 소 : 불교TV 문화원

- 21(월) 이어령 (오늘을 살아가는 문화코드)
- 22(화) 황우석 (불교와 생명과학)
- 23(수) 강영숙 (사람과 사람 사이 예절)
- 24(목) 성우스님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 25(금) 선재스님 (음식이 성격을 만든다)
- 26(토) 엄앵란 (가정에서 행복찾기)
- 27(일) 강지원 (아름다운 꿈을 향해)